제이미 찾기

\*등장인물

토미 - 제이미의 형. 어느 날 아침 사라진 어린 동생 제이미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제이미 – 토미의 동생. 형만 두고 혼연히 사라진다.

엄마 – 토미, 제이미 형제의 엄마. 오래전부터 앓아온 병 때문에 두 형제만 남겨두고 죽는다.

트루먼 아저씨 – 노숙촌에서 촌장쯤 되는 역할의 나이 많은 아저씨

크리스 삼촌 – 제이미를 목격하고 토미에게 알려준다.

그 외 – 오토바이 탄 남자, 상점주인, 신고하는 여자, 지현, 지현엄마, 지현아빠

\*줄거리

엄마가 돌아가신 후 거리로 내몰린 토미와 제이미 형제.

이리 치이고 저리 쫓겨 굴다리 밑의 노숙촌으로 들게 된 형제의 어느 아침, 동생 제이미가 사라졌다. 어린 동생을 잘 보살피라는 엄마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동생을 찾아 나선 형 토미. 그 어느 곳에서도 제이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자 절망감에 빠져 있는 토미에게 다가온 제이미를 목격한 크리스 삼촌. 크리스 삼촌의 말대로 지하철역 부근에서 제이미를 찾는다. 재회의 순간 속도를 늦추지 못 한 승용차가 달려드는데..

제이미 찾기

1. 제이미의 집 / 꿈

불도 들어오지 않는 방, 밖에서 들어온 불빛이 방안을 비춘다.

가래 섞인 호흡을 내뱉는 엄마가 누워있다.

제이미와 토미는 엄마 곁에 앉아 있다.

**(엄마)**

**(겨우 손을 들어 올려 토미의 손을 잡는다)**

**엄마가 미안해. (호흡으로 말을 잇기가 힘들다)**

**우리 토미랑 제이미 잘 돌봐줘야 하는데, 엄마가 먼저 가서 미안해. (힘겹게 침을 삼킨다)**

**제이미랑 절대 떨어지지 말고, 네가 형이니까 잘 돌봐줘. 잘 할수 있지?**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잡은 손에서 점점 사라지는 온기가 느껴진다.

제이미는 아직 엄마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모습이다.

제이미는 엄마의 팔 안으로 파고들려고 연신 힘을 쓰지만 엄마는 반응이 없다.

**(제이미)**

**엄마.. (동생이 놀랄까 소리도 내지 않고 흐느낀다)**

떨리는 제이미의 뒷모습을 비추는 화면.

깜박거리던 불빛이 일순간 꺼지며 방안이 어두워진다.

**(소리)**

**엄마..**

타이틀, 제이미 찾기

1. 굴다리 밑 / 이른 아침

왕복 8차선의 도로. 새벽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도로는 아직 한적하다.

도로 가까이 다가가는 화면. 안개 때문에 희미하던 시야는 점점 또렷해진다.

8차선 도로 밑을 가로지르는 하천으로 이동하는 화면.

하천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에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하천을 따라 음료캔이 휩쓸려 내려가다 낮은 바닥에 걸려 멈춘다.

8차선 도로 밑으로 널찍한 그늘이 만들어져 있고, 엉성하게 울타리가 드리워져있다.

버려진 돗자리, 나무판자, 더러운 이불이 널부러져있다.

커다란 TV 박스를 주시하는 화면. 부스럭 움직이다가 박스가 옆으로 쓰러지자 잠든 토미가 보인다.

**(토미)**

**(박스가 쓰러지고 찬 기운기 몸을 훑어 부르르 떤다. 눈도 슬쩍 떠진다)**

**제이미?**

**(토끼눈이 된 토미가 벌떡 일어나 두리번 거린다)**

**제이미!**

토미는 주변의 돗자리며, 이불 가지를 들춘다.

토미의 소란에 여기저기 잠자던 아저씨, 삼촌들이 일어난다.

1. 굴다리 밑, 토미의 시선 / 이른 아침

이제 막 잠을 깬 아저씨들 사이에서 제이미를 찾는 화면. 없다

하천을 따라서 빠르게 화면이 훑고 지나간다. 깡통과 쓰레기 더미뿐이다.

도로를 지붕 삼아 위쪽에 둘러진 울타리에서 제이미를 찾지 못한 토미, 반대편 울타리까지 한달음에 달려간다.

제이미를 찾지 못한 토미, 어깨가 축 처진다.

1. 굴다리 밑 / 아침

힘없이 앉아있는 토미

**(트루먼 아저씨)**

**(슬며시 다가와 토미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무슨 일이니, 토미?**

**(토미)**

**(울먹이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이미가 (훌쩍) 없어졌어요.**

**(트루먼 아저씨)**

**(크게 놀라진 않는다)**

**제이미가? 또 어디 가서 혼자 놀고 있는 게 아닐까?**

**(토미)**

**(하천에 세워진 도로 기둥들을 가리키며)**

**저 기둥들도 다 돌아보고 (훌쩍) 하천 주변을 찾아봐도 안 보여요.**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 소매로 눈을 닦는다)**

**(트루먼 아저씨)**

**진정하렴 토미. 잘 생각해봐, 어제 확실히 네 곁에서 잠이 들었니?**

**혹시 다른 곳에서 잤다거나 하지 않았어?**

**(토미)**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로젓는다)**

**(혼잣말을 하듯)**

**동생을 잘 돌보라고 엄마가 그러셨는데..**

트루먼 아저씨가 토미의 옆에 앉아 다독인다.

**(트루먼 아저씨)**

**토미,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서 놀고 있을 게야.**

**(손으로 울타리 넘어를 가리키며)**

**그러다 정신이 팔려 여기를 벗어났을 테지.**

**그러다 조금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품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아침을 나눠먹게 될 게야.**

1. 굴다리 밑 / 오후

토미는 여전히 기운이 없고 아직도 혼자 앉아 있다.

손에는 빵 조각이 들려있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동생 생각에 더 침울해지는 토미

1. 굴다리 밑 / 오후 (회상)

토미는 빵을 먹고 있다.

군데군데 묻어있는 모래를 털어내기도 한다.

바로 옆에 제이미가 앉아 있는데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다.

**(토미)**

**(볼에 빵이 가득한 채로)**

**왜 안 먹어? 아까 배고프다고 했잖아.**

제이미는 대꾸 없이 앞에 놓인 빵을 노려본다.

빵에는 흙인지 검정인지 묻어있다.

**(제이미)**

**이거 먹기 싫어!**

**(빵을 던져버린다)**

제이미의 힘으로는 던져진 빵이 하천에도 미치지 못한다.

바닥에 떨어진 빵에 흙이 범벅이 되어 아예 먹지 못할 것 같다.

**(토미)**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삼촌, 아저씨가 애써 구해온 빵인데**

**그럼 먹지 마!**

토미는 제이미를 크게 꾸짖고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1. 굴다리 밑 / 오후

제이미가 끼니는 챙겨 먹었는지 걱정이 앞선다.

제이미는 초조함에 노숙촌 입구를 쳐다본다.

울타리 앞으로 가보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한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는 하늘

토미는 깊은 한숨을 쉰다.

**(소리)**

**(바닥에 닿을 듯 고개를 떨구고 있는 토미)**

**동생이 사라졌는데, 배고픔에 배를 채우고 하루 종일 노숙촌 안에서 기다리기만 했어.**

**(고개를 퍼뜩 드는 토미)**

**제이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엄마가.. 엄마가 동생을 잘 돌보라고 하셨는데..**

토미의 눈빛이 달라지더니 노숙촌 입구로 달려간다.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산책로, 노숙촌으로 자리 잡은 굴다리 밑은 전혀 다른 분위기다.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산책로.

노숙촌이 생겨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것인지, 사람들의 이용이 뜸해져 노숙촌이 생긴 건지 알 수 없다.

토미는 울타리를 지나 노숙촌 밖으로 나간다.

1. 갈비집 앞 / 오후 (회상)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숯불갈비 집.

투명 유리 벽에 창문이 많은 개방형 가게에서 풍기는 고기 냄새와 연기가 이목을 집중시킨다.

가게의 반대편 길 건너에 토미와 제이미가 앉아 있다.

갈비집에 정신이 팔려있는 둘, 제이미는 군침을 삼킨다.

1. 갈비집 앞 / 오후

갈비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빈다.

토미와 제이미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아무도 없다.

토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혹시 제이미가 있는지 기웃거린다.

사장과 눈이 마주친다.

놀라서 도망치는 토미

1. 굴다리 밑 / 오후

실망감에 빠져 노숙촌으로 돌아오는 토미

토미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트루먼 아저씨

**(트루먼 아저씨)**

**토미, 아직 동생은 못 찾았니?**

**(토미)**

**(고개를 푹 숙이고 중얼거리듯)**

**제이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쩌죠?**

**(트루먼 아저씨)**

**그런 생각은 하지 말거라.**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토미를 다독여주는 트루먼 아저씨

1. 굴다리 주변 / 다음 날 오전

토미는 골목길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제이미가 있을 만한 곳을 뒤진다.

오전 시간이라 동네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좀은 틈새

아이들이 모여 노는 놀이터

식당 몇 곳이 붙어 있는 길목

사람들이 많은 시가지

노숙촌의 지붕 역할을 하는 8차선 도로

출근 차량들로 정체되어 있어 반대편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이미는 없다.

토미는 뛰었다가 걷기를 번갈아한다.

다시 골목으로 돌아와 뛰는 토미

코너를 돌려는 찰나 오토바이와 부딪칠 뻔한다.

우당탕! 요란하게 넘어지는 오토바이와 남자

**(오토바이 탄 남자)**

**이 개새끼야! 일로 안 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토미

1. 굴다리 밑 / 오후

터덜터덜 노숙촌으로 돌아오는 토미

기다렸다는 듯 토미에게 다가가는 크리스 삼촌

**(크리스 삼촌)**

**토미! 내가 제이미를 봤어!**

**아까 지하철역 방향으로 뛰어가는 걸 봤다구**

정신이 번쩍 드는 토미

다시 노숙촌 밖으로 달려 나간다.

1. 지하철역 입구 / 오후

노점상들을 지나 크리스 삼촌이 말한 지하철역에 도착한 토미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머뭇거리는 토미

조심스럽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간다.

토미가 내려가자 사람들이 불쾌함을 드러내며 거리를 둔다.

1. 지하철역 내부 / 오후

쉴 틈 없이 사람들이 오가는 역 내부

기다란 통로를 따라 늘어선 작은 상점들

조심스럽게 둘러보는 토미

토미를 발견한 상점 주인

**(상점 주인)**

**이것들이 또 들어왔네, 이 더러운 새끼들 빨리 안 나가!**

**(기다란 막대기를 들고 휘두르는)**

**니들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고 이 새끼들아!**

놀라서 계단을 뛰어오르는 토미

다시 밖으로 올라온다.

1. 지하철역 입구 / 오후

시끄러운 음악과 요란한 불빛들이 뒤섞인 거리

활기 넘치는 사람들

벌써 술에 취한 사람도 있다.

토미의 눈앞에 제이미의 실루엣이 보인다.

토미는 그 실루엣의 뒤를 따라간다.

뒤를 돌아 토미를 향해 손짓 한다.

토미가 실루엣을 잡으려 하는데 사람들에 부딪쳐 부서져 내린다.

다시 실루엣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토미

차도 반대편에서 제이미를 찾은 토미

제이미가 사람들 틈에서 걷고 있다.

실루엣이 아니고 진짜 제이미다.

**(토미)**

**(펄쩍펄쩍 뛰며 손을 흔드는)**

**제이미!**

**여기야 제이미!**

한참을 뛰고 외치는 토미

토미를 발견한 제이미

곧장 차도를 가로질러 뛰는 제이미

**(토미)**

**제이미 위험해!**

**거기 있어, 오지 마 제이미!**

끼이익! 달리던 승용차에 제이미가 치인다.

도로 한가운데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제이미

승용차는 잠시 멈췄다가 그대로 가던 길을 가버린다.

**(토미)**

**제이미!**

제이미를 향해 달려오는 토미

쓰러진 제이미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반응이 없는 제이미

울면서 제이미 곁을 지키는 토미

경적을 울리며 달려드는 또 한대의 승용차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토미를 치고 그래도 달리는 승용차

길을 가던 여자가 백에서 핸드폰을 꺼낸다.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여자

**(신고하는 여자)**

**여보세요, 여기 소망병원 앞에 삼거리인데요.**

**여기 개 두 마리가 차에 치였어요.**

**와서 좀 치워주세요.**

토미와 제이미의 사고 현장을 위에서 바라보는 화면.

1. 어느 가정집 / 오후

**(소리)**

**(여자아이가 집이 떠나가라 우는)**

**으아아앙!**

집안에 울리는 지현의 울음소리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이삿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지현의 아빠가 애 좀 달래라고 소리친다.

1. 지현의 방과 노숙촌, 인물들의 화면 교차

지현의 엄마가 우는 지현 앞에서 안절부절

**(지현)**

**토미가 없잖아, 토미는 왜 안 데려왔어!**

**써니도 안 데려오고!**

**(지현의 엄마)**

**지현아, 써니랑 토미는 같이 올 수가 없었어**

**그만 울고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지현을 눈물을 닦아주며)**

**걔네들은 거기서 계속 살기로 했어**

굴다리 밑 노숙촌의 전경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개의 모습

더러운 이불에 얼굴을 비벼대는 개의 모습

**(지현)**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거짓말! 다 버리고 왔잖아!**

엄마는 한숨을 쉬며 열이 나는 듯 이마에 손을 댄다.

하천의 물을 할짝거리는 개들의 모습

빈 참치 캔을 건드리며 킁킁거리는 개들의 모습

**(엄마)**

**(다시 지현의 눈물을 닦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럼 새로 하나 사자.**

**우리 지현이 야옹이 사고 싶어 했지?**

**이따가 엄마랑, 아빠랑 야옹이 사러 갈까?**

오토바이를 타던 남자가 철가방에서 자장면을 꺼낸다.

나무젓가락을 뜯던 상점 주인이 개들을 발견

긴 막대기를 휘두르며 개들을 쫒아낸다.

1. 어느 가정집의 거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는다.

**(지현의 아빠)**

**그러게 토미랑 써니는 왜 안 데리고 왔어?**

**저렇게 난리인데**

**(지현의 엄마)**

**(모르면 말을 말라는 듯 손사래를 치며)**

**써니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빌빌대잖아**

**곧 죽을 것 같더라고**

**아 몰라, 그냥 이번 기회에 버리고 고양이로 바꿀 거야.**

(끝)